

A Challenge about Thoughtlessness 배려 없는 행동에 대한 도전 (고전 11:17-34)

The Telling Treatment of those who 'Have-Not'

There is no other gathering of people in the world like the church belonging to Christ. There are social organisations of middle & upper class business people. There are clubs that meet with common sporting or leisure interests. There are volunteer groups that come together for charitable causes. But there are none like local church who meet in the name of Christ.

Where else would you find a people who call ourselves family with such diverse social, ethnic & economic backgrounds? The great empowerment we have as those redeemed & transformed by Christ is to love God & love one another. When that is obvious among a community it's to God's glory & the honour & flourishing of the church. When we fail, it is to God's dishonour & the shame & decay of the church

Flourishing or failing depends on the degree to which we are centred on Christ & His grace...When we are Christ-centred, we will show it by the way we love Him ... & the way we treat others...When we aren't Christ-centred, we will show it by the way we lack love for Him ... & the way we mistreat or even simply disregard others.

One of the wisest things I remember my late brother telling me was this, "You can tell a lot about the character of someone by the way they treat those who the world thinks don't matter, especially when no one is watching."

It can be easy to assume we're 'Christ-centred' but a question for each of us that comes from the passage to help expose the degree to which we are Christ-centred is this, "How am I regarding those with whom I may not have any 'natural' connection?"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함.

세상 어디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중산층과 고위층 사업가들이 속한 사회 모임이 있고. 공통된 스포츠나, 여가 생활을 중심으로 모이는 동호회가 있고. 자선 활동을 위해 함께 모이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이는 지역 교회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사회적, 민족적, 경제적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를 어디서 발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변화된 자로서 가지고 있는 큰 권능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공동체 안에서 잘 드러날 때,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교회는 번창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수치를 안기며, 교회를 쇠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번창하느냐 혹은 썩느냐는,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라면, 우리는 이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낼 것이며...이와 반대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올바르게 대하지 못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의 형제가 말한 가장 지혜로운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길...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세상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낸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함으로, 우리가 진정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The world & our selfish default influences drive us to unity in our likes, our language, our level of income...But if we're truly Christ-centred, we will have genuine love for all — that especially shows itself in the way we treat those who aren't able to 'repay' us...those who test our motive...those who show up the degree of grace that has taken hold of our hearts.

For the first century Corinthian church, we've already seen the challenge about divisions in chapter 1. That was based around their worldly regard for leaders. Here, in this passage, we see it's based on their social status...because a group of them were status-centred...those with a lower worldly status were being mistreated...of all places, at the Lord's Supper.

Paul begins with the problem, then spends the remainder of the passage giving the Christ-centred reminder of the original Lord's Supper & then application of it for correction.

The Problem (17-22)

v17, '(But) in the following instructions I do not commend you, because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for the better but for the worse. For, in the first place, when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I hear that there are divisions among you. And I believe it in part (the footnote, 'I believe a certain report.')

When Paul says that he does not commend or praise them...it's an understated way of saying that "what they're doing is fitting of the opposite" — disapproval, criticism, rebuke.

The certain report that Paul has heard — possibly again from Chloe's household, he believes. The report is that when they come together, there are divisions.

이 세상과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우리의 관심사나, 언어, 수입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그러나 우리가 만약 진실로 그리스도 중심이라 한다면, 이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합니다...특별히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나,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는 사람들을...

1 세기 고리도 교회에, 이미 분열의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1 장을 통해 봤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번에는 사회적 신분을 기반으로 교회가 분열되었음을 봅니다...이는 그들이 신분 중심 가운데,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들을 성찬에서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함으로 시작하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찬에 대해 상기시키며, 올바른 적용점에 대해 말씀합니다.

문제점 (17-22)

17-18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함은, 이들이 올바른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며, 이들을 못마땅해하고, 비판하며, 꾸짖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 다시 보고를 받고, 이 보고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때 이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These factions must happen, Paul says v19 'in order that those who are genuine among you may be recognised.' The word translated 'genuine' can also mean 'elite' or 'approved.' When we understand that — particularly with what Paul goes onto say, we can see that he's being sarcastic... The sense of what Paul is saying is that the factions were necessarily dividing them — to reveal the so called elite or approved...

Now, he details the problem, v20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the Lord's supper that you eat. For in eating, each one goes ahead with his own meal. One goes hungry, another gets drunk. What! Do you not have houses to eat and drink in? Or do you despise the church of God and humiliate those who have nothing? What shall I say to you? Shall I commend you in this? No, I will not.'

What we see here is that the Corinthians were coming together with a view to celebrating the Lord's supper...but because of the thoughtlessness of some we could call 'those who have' towards the other group, 'those who have not' ... it was not at all representative of the Lord's supper.

The elites — those who had means were the wealthy ones. They had more freedom to arrive to the host house whenever they wanted — unlike the late arriving members who had to work for various masters. The venue would have been a large home belonging to one of the wealthy members...in close 'natural' relationship with others of a similar social class. These members were making a mockery of the supper by their self-indulgence & thoughtlessness...even to the point of getting drunk.

이런 파벌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다고 바울은 19 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서 “옳다”라는 단어는, 엘리트 혹은 승인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이는 바울이 이들을 비꼬기 위해 이런 단어를 사용함을 보게 됩니다...이런 파벌이 이런 엘리트들과 승인받은 자들을 드러내기 위해 일어나야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 절로부터 구체적 문제를 언급합니다. (20~22 절)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새 번역>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위해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일 때, 좀 더 많은 것을 누렸던 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자들에게, 생각 없는, 배려 없는 행동을 행함으로써, 참된 성찬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봅니다.

여기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던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찬의 장소에, 자신들이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주인을 섬기며 일을 해야 했기에, 성찬 장소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찬의 장소는 아마도, 한 부유한 사람의 큰 집에서 이뤄졌을 것입니다...그리고 이는, 이 부유한 집 주인과 비슷한 사회적 신분의 사람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찬을 조롱했고, 성찬으로 술에 취하기까지 합니다.

All this was happening at the expense of the poor — the group who had nothing — Their thoughtlessness resulted in such poor treatment as to despise & shame the ‘have-nots.’

Of all the places for this to have occurred, it was in the setting that was intended to be for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While there’s no obvious ungodly thoughtlessness at our own celebrations of the Lord’s Supper.....that’s not to say that we’re free from the problem of thoughtlessness towards others.

While we enjoy diversity of numerous nations....in an affluent part of Melbourne....we do well regularly to ask “Am I favouring some over others because of what I might gain? Am I disregarding others because of what I might lose (energy, time, money) ?” We won’t change by trying to be thoughtful....we can only change by remembering our Lord

Christ-Centred Reminder for Correction (23-26)

v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Though there are the accounts of the Lord’s Supper in Matt, Mark & Luke....here, Paul says that the Lord Himself gave Him these words. That means, Jesus communicated this last supper account from His risen & glorified state.

결국 이로 가난한 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부유한 자들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가난한 자들은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성찬식을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웃을 배려 없이 대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멜번의 부유한 지역에서, 많은 문화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내가 혹시나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에너지나, 시간, 돈을 잃게 함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는 단순히 배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정을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

23~25 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새 번역>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바울은 말하길,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씀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영화 가운데 이 성찬에 대해 바울에게 말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In the first Lord's Supper the Lord was completely selfless & sacrificial to the benefit of others...In this, the so-called Corinthian Lord's Supper — the 'haves' were being thoughtlessly indulgent & greedy to the harm of others.

Paul reminds them of the grace of the Lord Jesus at the original Lord's Supper....to correct the gracelessness at their own suppers ~ 20 years after the first. Jesus said that they were to eat & drink 'in remembrance' of Him....in remembering, the Lord's intent was that they would be corrected by His grace.

Since their gatherings had turned into loveless feasts....not fit to be called the Lord's supper. It was the 'Lord's Supper' in name only. Along with recalling Jesus' own selflessness on view in the last supper, the Corinthians were to remember the point of the sacred meal....

v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Participation was for the purpose of 'proclamation.' That word conveys the sense of a solemn announcement.

The Lord's Supper is a means of grace — that is, a particular way of reminding & strengthening believers by partaking in the elements — in that, we proclaim to one another the greatest selfless act of all time — Jesus giving of Himself for us.

Can you see how tragically ironic it had become for the Corinthians? The meal that was intended to proclaim the ultimate giving had degenerated to be nothing but an exercise in taking. That's why Paul warns them at the start of the final section, by way of a Christ-centred application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첫 번째 성찬에서, 주님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완전히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셨습니다...이와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의 성찬은, 가진 자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성찬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첫 성찬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그들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정 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들의 모임이 그저 사랑 없는 잔치가 되어버린 이후, 참된 성찬이라 불릴 수 없었고, 이는 명목뿐인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기시킴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26 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은,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엄숙한 성명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성찬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실을 상기시키며 힘을 돌아줌이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찬의 의미를 이해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은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적용점을 제시하므로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Christ-Centred Application for Correction (27-34)

v27, 'Whoever, therefore,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concerning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Let a person examine himself, then, and s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The conclusion in light of the original Lord's Supper is that the elite, 'approved' or so called 'genuine' group were eating in an 'unworthy manner.' Their practice was completely unacceptable —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occasion. In doing that, they had brought guilt upon themselves concerning the body & blood of the Lord.

To prevent such appalling practice & ongoing guilt — after calling them to remember Christ's sacrifice, Paul commands them to examine themselves....that is, to consider the state of their own hearts with a view then to take the Lord's Supper in a worthy manner.

At this point many followers of Christ misunderstand the application.

At one extreme, you might find some who think, 'well I'll never be worthy, so better not to take the Lord's supper.'

But the issue is not to examine & cleanse ourselves to make ourselves worthy to receive—the whole point of the gospel & the Lord's Supper is that it's for unworthy sinners.

That's why Christ died — so that by His merits the unworthy would receive eternal right-standing before God. It's to examine & repent of sin so that we would partake of the Supper in a *worthy manner*

교정을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적용점.

27~28 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참된 성찬의 배경에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이 엘리트 그룹들은, 성찬의 음식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관행은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그들은 주님의 몸과 피와 관련하여 스스로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이런 끔찍한 관행과 계속되는 죄를 막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말씀 후에,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명령합니다...살피라 함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숙고하여,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적용점에 대해 오해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극단적으로 생각해, “나는 결코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으니, 그냥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요점은, 성찬에 참여하는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깨끗하게 함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과 성찬의 요점은, 이 모든 것이 합당치 않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합당치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맥락에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함이란, 우리 마음을 살펴 우리의 죄를 회개 하는 데 있습니다.

Paul clarifies by explaining what he means by an ‘unworthy manner’ v29,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discerning the body eats and drinks judgement on himself.’

Receiving the bread & cup in an unworthy manner was to receive it ‘without discerning the body.’ But what does Paul mean by ‘the body’? In 10:16 Paul spoke of the bread as a participation in the ‘body of Christ’. In 10:17 he called the church, ‘the body.’

In the context here, Paul has been speaking about both the body of Christ given — represented by the bread....& the body of believers who were coming together for the so-called ‘Lord’s Supper.’ The fact was that because the elite hadn’t discerned the body of Christ in the meal...they’d become completely thoughtless & undiscerning about the body of believers. Their lack of discernment, lead to a dreadful consequence...

v30, ‘That is why many of you are weak and ill, and some have died.’

While it’s possible that Paul is saying the Lord had brought a direct judgement of sickness & death more likely given the thoughtlessness resulting in the ‘have-nots’ going hungry — Paul means that the reason that some had become sick, weak & had died is because of malnourishment. This is made all the more likely given Bruce Winter’s research that indicates the ‘present distress’ Paul wrote about in 7:26 was a famine that was impacting Corinth at that time. It also fits the context better.

The guilt & coming judgement of the Lord was on the elites. The correction, says Paul involved v31, judging oneself truly... in order to avoid God’s judgement. It relates to the self-examination necessity before right receiving of the supper...discerningly....thoughtfully.

바울은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함이 무엇인지, 29 절에서 좀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이” 빵과 잔을 합당치 않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고전 10:16 절에서 말씀하기를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17 절에서는, 교회가 그 몸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빵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지체와, 이 성찬을 위해 다 같이 모인 성도들의 지체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엘리트 그룹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음으로, 성도들의 지체를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분별하지 못함이 이런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30 절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새번역). 이 말씀은, 이들이 성찬을 잘못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결과로 그들이 아프고 죽게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이들의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굶게 되었음을 의미로 해석함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아프고, 약해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는 브루스 윈터의 연구 자료를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바울 또한 고전 7:26 절에서, 고린도가 기근으로 재난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 엘리트들은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고 교정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31 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자기 자신을 살피라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신중함 가운데 살핌을 포함합니다.

There's also hope knowing that in Christ, as v32 says, that any judgement from the Lord is for our discipline so that we won't be condemned along with the unbelieving world.

The final practical, Christ-centred point of application is v33, 'So then, my brothers, when you come together to eat, wait for one another — if anyone is hungry, let him eat at home — so that when you come together it will not be for judgement.....'

The phrase, 'wait for one another' can also be translated as 'wait upon.' In other words, the Christ-centred action was to serve the 'have-nots.' That also fits better with the meditation on our Lord's words at the last supper...who gave His body & shed His blood for our redemption.

The problem was thoughtlessness that resulted in selfishness that resulted in hunger & death. The solution was to remember the self-giving grace of Christ that resulted in spiritual satisfaction & life & to apply it by self-examination & Christ-like service.

It brings us back to the question, 'How do I regard those who present a challenge for me to get to know?' 'Are there some whom I practically regard as not worth the effort?'

It is to God's glory that CPC is so diverse.....while there is a certain kind of understandable reasonable & natural division that forms along the lines of language...It's tempting to withdraw to the point of having little to no regard for those who are different.

To have exclusive association with those who are like me.... who have something that will contribute to my happiness...or at the very least...who don't present a challenge to my comfort zone... Matthew 5:47, "if you greet only your brothers, what more are you doing than others? Do not even the Gentiles do the same?"

또한 32 절에서 말씀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판은, 정죄가 아닌 징계를 위한 심판임을 알 때, 이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마지막 적용 점을 33 절에서 보게 됩니다. 33~34 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를 기다리라는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희생되어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해 볼 때, 이는 매우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기심 가운데 배려 없는 행동이, 다른 이들을 굶주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에게 참된 영적 만족과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이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금 물어보게 합니다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수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캔터베리 장로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있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이 가운데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끼이 모임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이는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내 만족과 혹은 나의 편안을 위해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마태복음 5:47 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The Regard that only Grows by Grace

What hope is there in the challenge of thoughtlessness? Much....but only when we recognise the default tendency to think less of those who might cost us something to welcome & love. Being centred on Christ is the only solution to our selfishness

As we remember the regard Christ first had for us.....As we apply His grace in the way we treat others.... Such regard for others can only happen & grow by grace...1 John 4:19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오직 은혜 안에서 가능한 성장.

배려심 없는 행동으로 오는 도전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 가운데 소망은, 우리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인정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둬서 우리 이기심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대하셨음을 기억할 때...우리 또한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이들을 사랑 가운데 대함은 오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요한일서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